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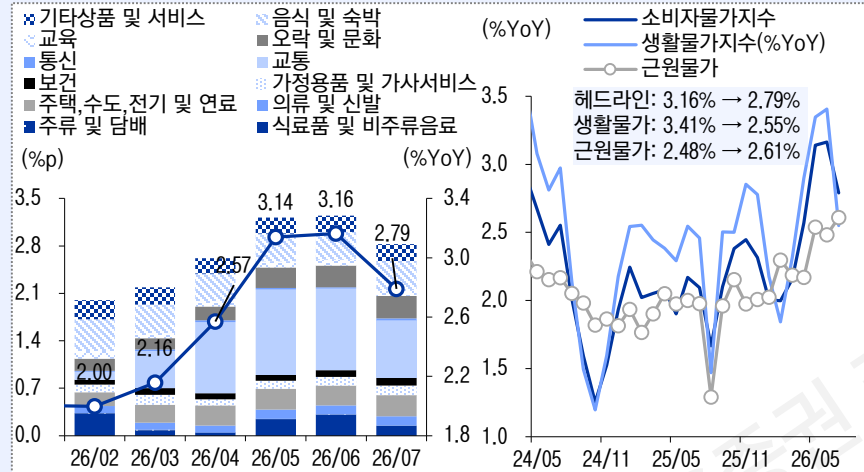
Today Chart Bond

2026. 8. 4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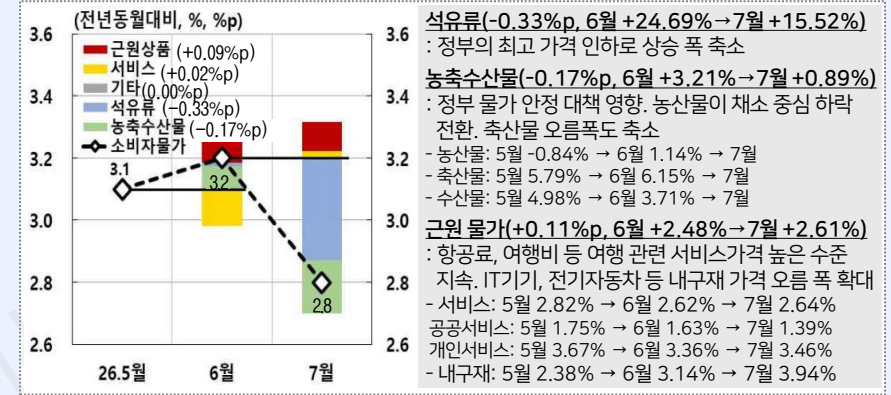
한국 2026년 7월 CPI: 근원물가 반등 vs 생활 물가 둔화



항목	상승률(%MoM)	기여도(%p)	상승률(%YoY)	기여도(%p)
총지수	-0.18%	-0.18%p	+2.79%	+2.79%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26%	-0.04%p	+0.95%	+0.14%p
주류 및 담배	-0.25%	-0.00%p	+0.20%	+0.00%p
의류 및 신발	+0.16%	+0.01%p	+2.79%	+0.14%p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06%	-0.18%p	+1.85%	+0.32%p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24%	+0.01%p	+3.00%	+0.14%p
보건	+0.22%	+0.02%p	+1.57%	+0.13%p
교통	-1.65%	-0.18%p	+7.69%	+0.78%p
통신	+0.13%	+0.01%p	+0.65%	+0.03%p
오락 및 문화	+0.72%	+0.05%p	+5.55%	+0.34%p
교육	+0.11%	+0.01%p	+1.26%	+0.09%p
음식 및 숙박	+0.71%	+0.11%p	+2.76%	+0.42%p
기타상품 및 서비스	+0.19%	+0.01%p	+4.37%	+0.25%p

자료: CEIC,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물가 변동 요인



Key Point

-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 2.79%(전월 3.16%),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2.51%(전월 2.44%),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61%(전월 2.48%)
- 석유류: 국제유가 소폭 하락, 최고 가격제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기인
-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 출하량 증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 수급 안정 조치 등에 기인
-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최고 가격 인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상승폭 둔화. 생활물가 상승률도 2.5%로 큰 폭 낮아짐.
근원물가는 비용 충격 전이 등에 내구재 가격 오름폭 확대돼 소폭 확대
- 8월: 작년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로 7월보다 높아질 것
- 향후: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비용 충격의 전이·수요측 물가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 점검
→ 근원 물가 관련 코멘트는 6월 물가상황점검회의(7.2) 때와 동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증권